

| 국어는 이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제1차 진단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차 진단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 홀수 )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㉔	2	18	㉔	2	35	㉔	2	35	㉕	3
2	㉕	2	19	㉑	3	36	㉔	3	36	㉔	2
3	㉔	2	20	㉔	2	37	㉔	2	37	㉔	2
4	㉔	3	21	㉕	3	38	㉔	2	38	㉔	2
5	㉔	2	22	㉔	2	39	㉕	2	39	㉑	2
6	㉓	2	23	㉓	2	40	㉔	2	40	㉓	2
7	㉔	2	24	㉔	2	41	㉓	2	41	㉔	2
8	㉔	2	25	㉕	3	42	㉕	2	42	㉔	2
9	㉑	3	26	㉕	2	43	㉕	2	43	㉓	2
10	㉕	2	27	㉓	2	44	㉕	2	44	㉕	2
11	㉕	2	28	㉔	2	45	㉔	3	45	㉑	3
12	㉑	2	29	㉑	3						
13	㉔	2	30	㉑	2						
14	㉓	2	31	㉑	2						
15	㉓	3	32	㉕	2						
16	㉔	2	33	㉔	3						
17	㉔	2	34	㉑	2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차 진단평가 해설

## • 공통과목 •

### [1 ~ 4] 현대시

→ 김남조, '겨울 바다' | 나희덕, '어떤 출토'

1. [출제의도] 두 시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하여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미지의 새', '허무의/불', '인고의 물'과 같은 시구에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정서, 태도 등이 자연물에 투영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는 모성적인 존재가 다른 생명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숭고한 일로 여기는 화자의 인식, '늙은 호박'과 '벌레', 그리고 '둥근 사리들(=호박이 벌레에 먹히고 난 후 남은 씨앗들)'과 같은 자연물에 투영되어 시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가)의 주제 의식과 결부된 소재는 '물'과 '불'인데, 이는 화자의 내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지 화자와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나)의 화자는 '늙은 호박'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감응을 통해 주제 의식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소재와의 대립적 관계를 통해 주제 의식을 제시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의 계절적 배경은 겨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계절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나)의 화자는 '고추밭'에 있는 '늙은 호박'에 시선의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시선의 이동에 따른 풍경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출제의도]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6연의 '문'은 '더욱 뜨거운 기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자는 하나의 기도를 끝내고 난 후에도 이 '문'이 거듭하여 새로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열리는'이라는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기도'에 내포된 자신의 갈망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미지의 새'와 '보고 싶던 새'를 보면, '새'는 그 실체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화자가 신비감을 느끼며 추구하는 이상과 갈망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새들'이 '죽고 없었다고 했으므로, '새'의 부재로 인해 화자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의 '새'에서 상승의 이미지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② '해풍'은 화자의 '그대 생각'에 담긴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 버리게 하는 외적인 힘으로, 대상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좌절케 하는 것이지 그리움을 선명하게 되살려 내는 계기가 아니다. ④ '물이랑' 위에 '허무의/불'이 '불붙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실의에 휩싸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이랑'이 실의를 딛고 기쁨으로 충만해진 내면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출제의도] 내재적 맥락을 바탕으로 시구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 뒤따라 나오는 '죽음을 덮고 있는/관 뚜껑'과 결부하여 보면, '잘 마른 종잇장'은 속살이 벌레에 모두 파먹힌 채 알팍한 껍질만 남은

'늙은 호박'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잘 마른 종잇장'은, 살아 있었다는 흔적만을 남긴 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진하고 텅 비어 있는 '죽음'의 상태를 묘사한 것일 뿐, '늙은 호박'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결실에 경탄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늙은 호박'의 현신에 대한 경탄은 바로 다음 연의 '한 움큼 남아 있는 둥근 사리들!'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화자는 '늙은 호박'의 살을 '벌레들이 오글오글 빨고 있는' 모습에서 '타고 있는 불꽃'을 연상하며 이를 '소신공양'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휘 풀이를 보면 '소신공양'은 자발적인 현신으로 표현되는 종교적 행위이므로, 이 표현을 통해 화자가 벌레에게 먹히는 '늙은 호박'의 모습에 자발적 희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늙은 호박'이 벌레에 먹히고 있는 모습을 '은밀한 의식'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의식'은 앞의 '소신공양'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은밀한 의식'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그 일을 아무나 함부로 쳐다보서는 안 될 종교적 의식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자는 그것을 방해하지 않고 '고춧대를 덮어 주고 돌아'오는데,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도 '늙은 호박'의 죽음이 '벌레들'의 생장으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과정을 화자가 경건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둥근 사리들'은 벌레에게 속살을 파먹히고 남은 '늙은 호박'의 껍질을 들어 올리고 발견한 호박의 씨앗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그것을 '사리'라고 표현했는데, 어휘 풀이를 살펴볼 때, 이 표현에서는 화자가 다른 생명을 위한 현신을 종교적 수행에 견줄 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화자가 '고추밭을 걷어 내'면서 얻은 '뜻밖의 수확'이란 뜬금없이 고추밭에 뻗어 와 있던 '늙은 호박'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화자가 '늙은 호박'을 예기치 않게 얻은 덤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낼 뿐,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화자가 자기 현신의 의미를 성찰함으로써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늙은 호박'이 벌레들에게 속살을 파먹히며 소멸되어 가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응시를 통해서이지, '늙은 호박' 그 자체의 발견을 통해서가 아닌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그 진실'은 '그대 생각'에 담긴 진정성을 뜻하는 것으로, 그것이 '매운 해풍'에 '눈물져 얼어 버'렸다는 것은 '그대'를 향한 진실한 그리움이 실현되지 못한 채 절망으로 귀결되었음을 의미한다. 화자는 이러한 내적 고통을 '겨울 바다'에서 '매운 해풍'을 맞는 경험과 결부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가)에서 '나를 가르치는 건/연체나/시간'과 연결하면, 화자가 '끄덕이'며 서 있는 '겨울 바다'는 화자가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며 그 삶의 시간이 갖는 의미를 깨닫고 긍정하게 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인고의 물'은 화자가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을 견디고 있음을, '수심 속' '기둥'은 그러

한 이내의 자세가 화자의 삶의 자세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상실감에 좌절하고 있던 화자가 '겨울 바다'에서 고통을 견디는 삶의 의지를 회복하였음을 나타낸다. ⑤ 화자 자신에게 존재의 의미를 새삼 생각하게 해 준 '늙은 호박'의 잔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는 태도를 통해, 화자가 '고추밭'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늙은 호박'과 관련하여 겪은 경험을 가지 있게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5 ~ 10] 예술

5. [출제의도]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지문의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앤디 워홀의 자화상 작품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자화상 장르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목적으로 읽기에 적합하다.

[오답풀이] ① 지문은 앤디 워홀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있을 뿐,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지문은 여러 작가들의 창작 원리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④ 지문은 앤디 워홀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을 뿐, 다른 작가들을 시대순으로 열거하여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⑤ 지문은 자화상이 태동한 계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

6.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워홀은 스타가 되고 싶다는 당대에 만연한 꿈을 헛된 것으로 보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그 시대 문화의 전형으로서 자신을 대변하고자 했다.

[오답풀이] ① 첫째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자화상을 그리는 화가의 동기는 다양하다. ② 워홀은 타인과의 긴밀한 인간관계에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는 점에서 대중 매체에 빠져드는 삶을 추구했다. ④ 워홀은 자화상에서 상업 광고에서나 쓰이는 형광빛으로 얼굴을 칠하여 자신을 그 시대의 단면을 지지하는 하나의 도상처럼 보이게 했다. 이는 스스로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위한 것이다. ⑤ 팝피즘은 미국의 문화와 사회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하는 정신이다. 대중 매체의 지배를 받는 삶은 당시 미국 사회의 모습이다.

7.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표현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아에 대한 웅변'이란 보통의 자화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화상을 통해 화가 자신의 자아를 표출한다는 뜻이다. 이는 자화상이 화가에 대한 사실적 묘사뿐만 아니라 눈매의 미묘한 차이 등을 통해 화가의 은밀한 내면까지 겉으로 드러내는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자화상을 그릴 때 자신의 실체를 알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지만 이 욕망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 ② 문화와 사회를 보여 주는 정신은 팝피즘이다. ③ 자화상은 화가가 자신에 대한 탐구를 추구한 산물이다. 그 과정에서 객관적 자아보다 화가가 생각하는 자아에 의해 지배된다. ⑤ 보통의 자화상은 사실적 묘사에 기초해 있으면서도 주관이 배제되기도 화가의 주관에 의한 변형이 가미된다.

**8.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작품들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섯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홀의 자화상 역시 보통의 자화상처럼 자아 탐색의 산물에 해당한다. 그 시대의 인물상을 자화상에 담았는데, 이는 위홀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위홀의 자화상 속 인물은 하나같이 할리우드 스타들의 전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1964년의 「자화상」의 인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③ 1967년의 「자화상」은 인쇄할 때마다 얼굴 부분을 각기 다른 화려한 색채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형광빛마저 감돌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④ 1978년의 「자화상」에서는 자신의 삶과 외모마저도 시대의 전형으로 꾸몄는데 이는 시대에 대한 냉정한 관찰자의 자세로 당시의 전형적인 인물상을 포착한 결과이다. ⑤ 1978년의 「자화상」을 보는 관객은 그 속에서 살아 있는 정신세계를 지닌 한 인간이 아니라 시대의 단면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상을 만나게 된다.

**9.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위홀의 작품이 대상의 표면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자화상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언급과 더불어 작품 사례로 「메릴린」(1967)과 「캠벨 수프 깡통」(1962)이 소개되어 있다.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홀의 자화상의 특징들, 특히 작품 제작의 근거가 되는 팝피즘에 입각하여 이들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메릴린」에서 영화배우 메릴린 먼로의 세부가 지워져 내면을 알 수 없는 빈 껍데기처럼 보이도록 한 것은 자화상에서 표정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마저 제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모두 팝피즘에 따라 그 시대의 인간상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려는 의도이다.

**[오답풀이]** ② 「메릴린」은 사진을 토대로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된 것이며, 당대의 전형적인 인간상을 드러내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도록 한 것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세부를 지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성에 기초하여 제작한 작품은 아니다. ③ 위홀은 영화배우를 소재로 한 「메릴린」을 통해, 스타에 대한 욕망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래서 아름다움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찰나에 불과한 것임을 일깨우고자 했다. ④ 「캠벨 수프 깡통」 역시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깡통이 아니라 기호나 도상 같은 느낌을 들게 한 것이다. 이는 작품이 하나의 냉정한 상품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지 이를 피하려는 의도에서 제작된 작품은 아니다. ⑤ 「캠벨 수프 깡통」은 「메릴린」이나 자화상과 달리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통해 시대의 단면을 보여 주려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보다는 도상 혹은 기호와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

**10. [출제의도]** 특정 어구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비슷한 표현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시대를 비추는 자화상은 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상을 객관적으로 담은 것을 말한다. 주관적 변형이 가미된 것으로 바꿔 쓰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자아 탐색의 산물’은 자신의 실체를 알고 싶어 하는 화가에 의해 탄생한 자화상을 의미한다. ② ‘기계적인 방식’이란 사진을 따로 찍은 후 이를 토대로 실크스크린을 동원한 인쇄 방식을 의미한다. ③ 위홀의 자화상에서 사실성을 지워 버린다는 것은 자화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춘다는 의미이다. ④ 문맥상 ‘그러한 욕망’은 당시에 유행했던 ‘스타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다.

**[11 ~ 15] 고전소설 - 수필**

**→ 작자 미상, ‘장끼전’ | 이옥, ‘거미를 읊은 부’**

**1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까투리가 ‘자네도 내 말 들었으면 저런 변 당할 쏨가’라며 질책하자, 장끼는 ‘후환을 미리 알면 산에 갈 이 뉘 있으리.’, ‘죽는 놈이 탈 없이 죽으랴?’라며 맞서고 있다. ‘산에 간다’는 ‘죽어서 산에 묻힌다’는 뜻이므로, 장끼는 불행한 일을 예측할 수 있으면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을 통해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콩을 먹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오답풀이]** ① 까투리는 자신의 만류에도 위험한 선택을 한 남편을 탓하였다. 즉 남편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아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② 장끼는 ‘네 아무리 슬피하나 죽는 나만 불쌍하다.’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죽음을 슬피하였다. ③ 탁 침지는 자신이 놓은 덫에 치인 장끼를 발견하고 기뻐하지만, 그의 말에서 자신의 사냥 실력을 스스로 칭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까투리는 사고를 당한 남편을 두고 ‘우리 양주(부부) 좋은 금슬 누구에게 말할쏘냐?’라고 말하며 슬피하였다.

**12. [출제의도]** 작품의 특정 부분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통감』에 나오는 글귀를 인용한 것은 자신의 식견을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까투리가 남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발화 중에 들어 있는 ㉠에서 남편의 무지함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맥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 ‘원수르다’라는 한탄을 반복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음을 자초하게 된 ‘고집불통’ 남편에 대한 원망을 부각하고 있다. ③ 자신이 죽은 후 먹거리로 팔려 가게 될 장터나 관청, 혼인집 등을 나열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인물을 통해 작품의 핵심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자’가 ‘거미’를 벌레들의 적이라 여기고 거미줄을 걷어 내자 ‘거미’는 벌레들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거미줄에 걸려드는 것이라 말하며 당신도 처신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더 큰 거미줄에 걸려들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이자’는 ‘달아나다가 세 번이나 자빠지고’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서야’ 한숨을 내쉬었다.

이는 ‘이자’가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려는 태도를 행동으로 보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③ ‘거미’가 ‘처음과 같이 그물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없다. ④, ⑤ ‘이자’가 ‘거미’와의 대화를 마친 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낙관적 전망을 얻거나 내면의 갈등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

**14. [출제의도]** 소재와 관련하여 인물의 발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거미’는 ‘법관이 내긴 법령에 못 완악한 사람이 옥에 갇히는 것을 두고 법관의 잘못이라 하겠는가?’라고 하며, 법령을 집행하는 법관을 탓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물을 치는 자신도 비난받아서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거미’는 자신의 그물과 인간 세상의 법령을 유사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지문에서 인간 세상의 법령이 죄 없는 대상을 벌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거미’는 ‘도를 아는 군자는 죄를 지어 구속되는 재앙을 입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② ‘거미’는, ‘나비’는 ‘방탕한 자’이기 때문에, ‘파리’는 ‘소인배’이기 때문에, ‘매미’는 ‘스스로 자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물에 걸려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④ ‘거미’는 ‘이자’에게 ‘경박하거나 망령되어 굴’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면 더 큰 거미의 그물에 걸려들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자신의 그물에 걸려든 벌레들처럼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⑤ ‘어부가 포획한 짓을 한다고 하겠는가’라는 거미의 말은, 자신이 어부와 마찬가지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1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탁 침지가 장끼를 잡고 나서 산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은 맞지만, ‘구족을 다 잡으리라’고 말하면서 ‘까투리마저 치이’게 해 달라고 비는 모습은 꿩잡이에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과욕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가)는 장끼와 까투리의 관계에 빗대어 봉건 사회 속 부부의 모습을, (나)는 거미와 벌레들의 관계에 빗대어 죄와 벌의 이치를 단순화하여 전달하고 있다. ② 장끼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죽음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상부 짚은 네 가문에 장가가기 내 실수라.’라는 말로 자신의 죽음을 까투리의 집안 탓으로 돌리며, ‘자네 몸 수절하여 정렬부인 되옵소서’라는 말로 까투리에게 수절을 강요한다. 이와 같은 장끼의 자기중심적 태도는 당대의 남성 중심적 가치관의 부정적인 측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 작품은 이를 통해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 거리를 두고 성찰하고 있다. ④ (나)는 거미가 벌레들을 해치는 것을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세상사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⑤ 거미는 의인화된 인물로 볼 수 있으며, 처신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재앙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의 말에는 이야기 전달자(작가)의 경험과 판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6 ~ 21] 인문-과학

16.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활동지의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㉔는 부적절하다. (가)에서는 특정 개념을 설명하고 있을 뿐 그것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학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㉕는 적절하다. (가)와 달리 (나)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㉖는 적절하다. (나)와 달리 (가)에서는 과학에 대한 통념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인 토마스 쿤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17.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쿤에 따르면 기존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동일 잣대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어느 것이 우월한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교체를 진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오답풀이] ① 쿤에 따르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 현실의 모든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변칙 사례들을 잘 설명하고 이 패러다임을 다수의 과학자들이 수용하면 된다. ③ 쿤에 따르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지식은 폐기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과학 혁명이 일어난다. 따라서 지식이 누적해 가는 것은 아니다. ④ 쿤에 따르면 이론과 실험 사이의 오차를 줄이는 과정은 패러다임 교체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정상 과학 내에서 패러다임이 점차 완벽해져 가는 과정이다. ⑤ 패러다임의 위기는 그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설명하기 힘든 사례의 출현에 의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칙 사례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이를 심각하게 여기는 과학자들이 많아질 때 나타난다.

18.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시기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상 과학의 시기에 과학 혁명이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다. 위기 국면을 거치면서 다수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면 과학 혁명이 일어난다.

[오답풀이] ①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과학자들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 패러다임을 더욱 정교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③ 정상 과학의 시기에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뒷받침하는 모범 사례인 전형적인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표준적인 해법을 공유한다. ④ 과학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정상 과학의 시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 이론이 제시되고 다수의 과학자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⑤ 변칙 사례들이 속속 발견되고 이를 심각하게 여기는 과학자들이 많아지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든다.

19. [출제의도] 특정 이론을 바탕으로 <보기>의 두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16세기 이전에는 지구 중심설로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였고, 행성의 역행 현상이 변칙 사례로 등장하자 주전원의 개념이 도입되어 지구 중심설을 더욱 정교화하였다. 이후 다른 변칙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지구 중심

설에 위기가 발생하였고, 새롭게 제안된 태양 중심설이 다수의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패러다임의 교체가 일어났다.

[정답풀이] 주전원 개념을 도입하여 행성의 역행 현상을 설명한 것은, 이론과 관측 사이의 오차를 줄임으로써 패러다임을 정교화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쿤은 이러한 과정을 진보라 보았다.

[오답풀이] ② 주전원은 행성의 역행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의 역행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③ 쿤은 공약 불가능성으로 인해 패러다임 간에 무엇이 우월한지는 동일한 잣대로 가려질 수 없다고 보았다. ④ 태양 중심설은 지구 중심설을 정교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지구 중심설을 대체한 이론이다. ⑤ 하나의 변칙 사례가 발견된다고 하여 패러다임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20. [출제의도] 특수 상대성 이론과 뉴턴 역학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상대성 원리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에도 상대성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 있다는 상대성 원리는 뉴턴 역학의 근간이기도 하므로 이를 통해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뉴턴 역학은 속도가 상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뿐, 시간이나 길이가 상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② 뉴턴 역학은 시간이나 길이가 상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했는데 이는 물체의 궤적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지 않은 탓이라 할 수 있다. ③ 뉴턴 역학의 속도 합성의 법칙에 따르면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 빛의 속도가 다르게 측정되어야 한다. ⑤ 관찰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에 속도 합성의 법칙을 적용하면 빛의 속도가 0이 되어 빛의 존재가 사라지지만, 다른 관찰자에게는 여전히 빛이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상황은 관찰자가 등속 운동하는 경우에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상대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21. [출제의도] 특정 이론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뮤온의 수명은 100만분의 2초 정도로 이 기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최대 600m 정도이다. 하지만 실제로 뮤온은 지상에서 관측되는데, 이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빛의 속도에 가까운 뮤온의 시간은 지표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느리게 흐르므로, 뮤온은 보다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정답풀이] 뮤온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뮤온의 시간이 지연된다. 즉 지표의 관찰자가 보기에 뮤온의 수명은 100만분의 2초보다 훨씬 길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뮤온은 그만큼 더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므로 지표 부근에서도 관측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뮤온은 광속에 근접한 속도로 이

동한다. 관찰자의 이동 속도에 따라 뮤온의 이동 속도가 다르게 측정된다는 식의 설명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입장에서 사실이 아니며 ㉔를 설명하지도 못한다. ㉕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속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보기>에 따르면 뮤온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뮤온의 이동 속도는 광속에 가까우므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없다. ㉖ 시간 지연은 정지해 있는 관찰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관측 대상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관찰자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뮤온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른다. ㉗ 지문에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기차 안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흐르지만 기차 밖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차 안의 시간이 지연된다. 즉 뮤온의 입장에서 자신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2 ~ 25] 현대소설

→ 이순원, '19세'

2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집안의 농사는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것이지만 자신의 농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관령에 가서 고랭지 채소를 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나'가 집안의 농사를 경영하려고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 ④ 아버지는 내가 대관령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농사가 첫해에 실패한다면 학교로 돌아갈 것과, 대관령에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가 보내 준 책을 다 읽을 것을 요구하였다. ⑤ 아버지는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라며 '나'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음을 내비치면서도, '나중에라도 나가 니 갈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걸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보내는 게야'라며 '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었다.

23. [출제의도] 두 소재의 성격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중략' 이전 부분에서 '나'는 '저 산'(㉔) 너머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품고 '저 산을 넘고 싶다'고 생각하였으며, '중략' 이후 부분에서 '나'는 '내 경제의 농사'를 짓기 위해 '대관령'(㉕)으로 가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기로 한다. 따라서 ㉔는 바라는 곳에 다다르기 위해 넘으려 하는 공간이고, ㉕는 바라는 바를 현실로 실현하려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저 산'은 '나'가 자라면서 늘 보아 온 실제의 산이며, '나'는 '마음먹고 하루만 걸어도 오를' 수 있는 '저 산'을 '어른들만 넘을 수 있는 어른들만의 세계'라고 여긴다. ④, ⑤ 미래에 대한 '나'의 불안감이나, 새로운 생활에 대한 '나'의 걱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24. [출제의도] 구절에 함축된 인물의 심리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나'가 '그때(=상고에 진학하겠다고 말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승낙해 주었을 때)는 뜻도 모르고'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기뻐서 쉽게 대답했지만,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상고에 진학할 때는 아버지의 진의를 몰랐다고 했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손발이 고생한다는 것은 고된 노동을 의미하는데, ㉠에서 '나'는 고된 노동을 더욱 일찍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곧 고된 노동을 하게 되더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이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는 결정을 내린 '나'에 대한 아버지의 당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 그 결정을 고집하지 말고 학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비롯하여 보다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보라는 당부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은 '나'가 자신의 뜻(대관령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예견한 아버지가, 대관령에서 자식이 지낼 곳을 미리 마련해 두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아버지와의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조건부로나마 허락을 받고 '금방 어른이 되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이는 '어른으로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지 대관령에서의 생활이 '어른 놀이'에 불과할 것임을 예견했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 대관령에서의 생활이 기대했던 어른으로서의 삶과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면 '나'가 이처럼 즐겁고 기쁜 기분을 느낄리가 없으므로, 그 생활이 '어른 놀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나'가 예견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나'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생활이 '어른 놀이'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문에서 '나'는 그 시절을 '가장 눈부셨던 시절'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이 점으로 볼 때, 당시 '나'의 경험은 비록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삶이라 하기에는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내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 ③ '나'는 그 당시 '비록 어린 나이'임에도 '어른으로서 대관령을 누'웠다고 하고 있다. 이어지는 문단을 보면 그 이유가 '내 경제의 농사'를 지었기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다. 즉 '나'는 나이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지니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 역시 어른의 기준으로 여긴 것이다. ④ '나'는 전에 상고에 진학할 때에도 아버지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에는 '믿어 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다. 이로 보아 상고에 진학하겠다는 것이 '나'의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으며, 그러한 선택을 아버지가 수용해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6 ~ 29] 고전시가**

→ 이현보, '어부단가' | 이이, '고산구곡가'

**26.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는 <제1수>의 '알랴'(날 가는 줄 모르고 한가하게 지내고 있음을 나타냄. 설의적 표현), <제2수>의 '가렸는고'(속세가 자연에 가려서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냄.), <제5수>의 '이시랴'(잇은 적이 없음을 나타냄. 설의적 표현), '업스랴'(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세상을 구할 어진 선비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냄. 설의적 표현) 등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이 반복된다. 또한 (나)의 <제1수>의 '학주자를 흐리랴'와 <제6수>의 '영월 음풍흐리랴'는 다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5수>의 '어주에 누웠은들 (임금 계신 북벌을) 잇은 적이 이시랴'는 임금에 대한 충정을 나타낸 구절이므로, '도라보니'에 속세에 대한 미련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2수>의 '도라보니'에는 고독감이 아니라 속세와 분리된 자연('만첩청산')에 대한 만족감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1수>의 '일엽편주'와 <제5수>의 '어주'는 모두 배를 나타내는 말로서, 이는 자연에 묻혀 화자가 누리고 있는 유유자적한 어부의 삶을 나타내기 위한 소재이다. ② <제1수>의 '인세를 다 잊었거니'와 <제4수>의 '일생에 시름을 잊고'는 모두 화자가 과거에 얽매어 있던 것들에서 지금은 벗어나 있음을 나타내며, 이 두 시구를 연관 지어 이해한다면 과거의 시름이 속세에서 지내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화자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제4수>의 중장은 화자를 둘러싼 자연물이 '무심코 다정'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연관 지어 살펴본다면 <제2수>에 나타난 '무심'함은 화자의 마음 상태가 자연을 닮아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⑤ <제1수>에서 화자는 자신이 선택한 '어부의 생애'가 '시름업'다고 말하고 있으며, <제5수>에서는 정치 현실에 대해 자신이 '시름'할 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곧 화자가 앞으로도 계속 '어부'로서 시름 없이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외부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 따르면 (나)의 작가는 주회를 본받아 '은병'의 '수변 정사'에서 '강학'과 '영월 음풍'을 병행하려 하였지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다. (나)의 <제6수> 중장에는 그 둘을 함께 하려 하면서 화자가 느끼는 만족스러운 마음이 나타날 뿐, 내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벽파에 꽃을 띄워' 보내는 행위는 '승지'가 이곳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다)에 따르면 이는 같은 지향을 지닌 사람들을 자신이 세운 은병정사로 불러들이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제6수>에서 화자는 '수변 정사'가 '소쇄'하다고 감탄하고 있다. '소쇄'하다는 어휘 풀이와 함께 작가가 자연을 관조하여 그것을 닮아 가는 일을 목표로 했다는 (다)의 설명을 참조하면, 이는 작가가 그와 같이 청정무구한 마음 상태를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외부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제1수>에서 화자는 '만경파'에 배를

띄워 놓고 유유자적하고 있다. ㉠은 속세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이 아니라 화자가 즐거움을 누리는 자연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② 화자는 '만첩청산'이 '홍진(=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가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신이 떠나온 속세와 현재 자신이 속한 공간이 차단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두 공간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③ 화자는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어지러운 세상을 구제할 어진 선비가 있을 것이니 자신은 '시름'하지 않겠다는 말로써 정치 현실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다)를 바탕으로 이해한다면, '벗님네 다 오신다'는 말은 은병정사에서 추구하는 바를 통하여 현실을 개혁하는 일에 더 많은 선비들이 함께하기 바라는 마음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다)를 바탕으로 이해한다면 '승지'는 단지 아름다운 경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수양의 공간이 되는 이상적 자연으로 해석할 수 있다.

**[30 ~ 34] 사회**

**30. [출제의도] 지문의 설명 방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는 코즈의 정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웃집 개에 의해 수면이 방해받는 상황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코즈의 정리가 지닌 문제점과 관련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코즈의 정리와 관련된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④ 코즈의 정리가 다루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 코즈의 정리가 제기되기 전에 진행되었던 논의들을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⑤ 코즈의 정리에 기초하여 오늘날에 탄생한 제도를 설명하고 있지, 오늘날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31.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협상의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의견 조정에 따르는 거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오답풀이]** ② 코즈는 법을 통해 재산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재산권이 협상을 통해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이 명확해야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③ 거래 비용은 협상의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다. 협상의 결과로 배분되는 보상이 거래 비용인 것은 아니다. ④ 오염 배출권 거래제는 거래 비용을 낮추므로, 코즈는 경제적 측면에서 환경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고 볼 것이다. ⑤ 민간 경제 주체들의 협상에 정부나 제3자가 개입해야 효율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지문에 따르면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 비용이 낮으면 민간 경제 주체들이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2.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특정 견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코즈는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와 상관없이 협상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보았다. 다만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후생의 배분 양상은 달라진다.

**[오답풀이]** ① 코즈는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법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여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코즈는 경제 분석의 과정에서 거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협상하면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④ 코즈는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사회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33. [출제의도]** 지문에 근거하여 <보기>의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소의 방목 여부에 따라 목장주와 농부가 얻는 이익이나 피해가 달라지는 세 가지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과 ㉡은 목장주의 이익보다 농부의 피해가 큰 상황이고, ㉢의 경우 거래 비용이 있는 상황이다. ㉣은 거래 비용은 없으나 목장주의 이익이 농부의 피해보다 더 큰 상황이다.

**[정답풀이]** 소들로 인해 피해받지 않을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울타리를 세워야 하는데, 그럴 경우 목장주의 연간 이익인 300만 원이 사라진다. 그래서 목장주는 울타리를 세우지 않는 대가로 농부에게 연 25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때 농부의 피해액은 사라지지만, 협상안을 수용하면 피해액을 상쇄하고도 50만 원의 이익이 남으므로 농부는 목장주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한 협상의 결과, 목장주도 연간 50만 원의 이익이 남으므로 목장주와 농부의 후생이 모두 높아진다.

**[오답풀이]** ① 농부와 목장주가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합은 50만 원 수준이다. 거래 비용이 이보다 크므로 협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소들을 방목할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농부가 울타리를 세우는 대가로 150만 원보다는 크고 200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을 목장주에게 제시하는 협상이 성사될 수 있다. ③ 농부가 목장주에게 연 170만 원을 제공하는 협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들을 방목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⑤ 농부가 목장주에게 연 300만 원을 제공하는 협상은 성사될 수 없다. 연 300만 원은 농부의 연간 피해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34.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취할'은 문맥을 고려할 때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하니 몸이 한결 가벼웠다.'에서 쓰인 '취하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 ● 선택과목 - 회법과 작문 ●

### [35 ~ 37] 화법

**35. [출제의도]** 발표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첫째 문단에서 성덕 대왕 신종의 종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반응을 확인한 후 종소리 음원을 들려주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문단에서도 신종에서 맥놀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아는지 묻고 반응을 확인한 후 신종의 단면을 그린 그림과 함께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발표에 사용된 매체의 활용에 대해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타격 중심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야구공이 방망이의 특정 지점에 맞을 때 아주 멀리 뻗어 나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성덕 대왕 신종의 단면을 그린 그림을 활용하여 종 내부의 요철들이 맥놀이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⑤ 성덕 대왕 신종의 도면을 활용하여 당좌의 위치를 제시하고 당좌의 위치가 타격 중심과 거의 일치하여 여음이 길어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적절하게 추가 질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성덕 대왕 신종의 타격 중심이 하단으로부터 84.6 cm인 지점으로 당좌의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고 발표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으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38 ~ 41] 작문 - 화법

**38. [출제의도]** 건의문에 반영된 글쓰기 전략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둘째 문단에서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고, 내리막길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문단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할 것과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것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에 대한 설명은 ④가 가장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건의문을 적절히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학생 3'은 '우리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제외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 2'는 '실제로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은 적절한 고쳐 쓰기가 아니다.

**40. [출제의도]** 회의 참여자들의 말하기 전략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조사 자료가 있다고 언급해 주지만 하니 근거가 불충분해 보이지 않'냐고 질문함으로써 상대의 견해를 확인하고 있는 발화이지 상대의 제안 가운데 추가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발화가 아니다.

**[오답풀이]** ② '학생 1'이 '나는 우리의 건의 목적이 글에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 같아.'라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 '학생 2'는 '그러니까 현재의 초고에서는 건의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지?'라고 말하여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③ '학생 3'이 학생들이 길을 건너

면서 피해를 입은 실제 사례를 둘째 문단 마지막에 추가해 주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학생 1'은 '그러면 우리 글의 독자로 하여금 ~ 도움이 될 테니,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하여 해당 제안이 건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회의에 나타난 담화의 유형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C]에서 '학생 2'는 '현재 횡단보도의 선이 ~ 칠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학생 1'의 의견과 '그런데 우리의 건의가 ~ 제외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학생 3'의 의견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42 ~ 45] 작문

**42.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이 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생물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생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 상태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43. [출제의도]** 글의 끝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친구의 조언에 따르면 글의 끝부분에서는 생물 주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생물 주권의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물 주권은 생물 자원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 생물 주권의 확립을 위해 우리 정부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 ⑤가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제시된 두 글의 특성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가)의 글은 학생이 작성한 '정보 전달의 글'이고 (나)는 이를 작성한 학생의 '일기'이다. 그렇다고 할 때 (나)의 글이 (가)와 달리 일상에서 얻게 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려는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한 ⑤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② (가)에는 현상을 분석한 설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글쓴이의 체험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일상을 반성하려는 목적을 지니는 글은 '성찰하는 글'로, 일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나)가 일기이긴 하지만 (나)에서 일상을 반성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 ④ 자신이 전달하려는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글은 (나)가 아닌 (가)이다.

**45. [출제의도]** 글에서 활용된 자료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⑥는 각국이 생물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앞뒤 문맥을 보았을 때 이 정보는 (가)의 둘째 문단에서 토종 생물 자원을 타국이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그 생물 자원의 원산지 국가가 분배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활용되었다. 다른 나라의 생물 자원을 이용할 경우에 그 이익을 분배받는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③ 둘째 문단에서 생물 자원이 의약, 환경, 바이오산업 등에 활용되어 잠재적 부가가치가 높아졌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④ 해외 생물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생물종목록'을 구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접받침의 발음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접받침 'ㄹ'과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접받침 중 앞에 오는 것을 발음한다. 그러므로 '외곶'과 '활다'는 각각 [외골]과 [할따]로 발음해야 한다. 참고로 어간 받침 'ㅈ'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활다'의 '다'는 [따]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① '않'은 체언이므로 'ㄷ'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하지 않는다. ② '삼과'의 '리'은 용언의 어간 발음 '리'이 아니므로 접받침 중 뒤에 오는 것을 발음해야 한다. 그러므로 [삭파]가 올바른 발음이다. 한편, '값고'의 '리'은 용언 어간 발음의 '리'이 'ㄱ' 앞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갈꼬]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접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뒤에 오는 것을 발음하며, '표'은 대표음 [ㅂ]으로 바뀌어 발음하므로 '윙기름'은 [윙기름]로 발음해야 한다. ④ '늪죽하다'의 '늪-'은 [늪]으로 발음한다. 또한, '늪죽'은 하나의 어근이다.

36. [출제의도] 받침 'ㅎ'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접받침 'ㄹ'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뒤 음절의 첫소리가 자음이므로 연음되지 않는다. '뚫는'은 'ㅎ'이 탈락한 뒤에 유음화가 일어나 [뚫른]으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③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경우 'ㅎ'은 연음되지 않고 탈락하므로, 접받침 중 탈락하지 않은 'ㄴ'이 연음되어 '언짚아졌다'는 [언짜나전따]로 발음된다. ④ 지문에 따르면, 'ㄹ' 뒤에 'ㄴ'이 결합하는 경우 'ㄴ'은 [ㄷ]으로 발음하며, 'ㄹ'의 경우 항상 [ㄴ]으로 발음하므로 '않소'는 [안쏘]로 발음한다. ⑤ 어간 발음 'ㄹ'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지면 'ㅎ'과 'ㄱ'이 거센소리인 'ㅋ'으로 축약되어 발음된다.

37. [출제의도] 종결 어미의 기능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㉑의 종결 어미 '-어라'는 위 문장에서는 감탄형 어미로 쓰였으며, 아래 문장에서는 명령형 어미로 쓰였다. ㉒의 종결 어미 '-어'는 위 문장에서는 의문형 어미로 쓰였으며, 아래 문장에서는 명령형 어미로 쓰였다.

[오답풀이] ⑤ ㉑의 종결 어미 '-자'는 위 문장과 아래 문장에서 모두 청유형 어미로 쓰였으며, ㉒의 종결 어미 '-지'는 위 문장과 아래 문장에서 모두 평서형 어미로 쓰였다.

38. [출제의도] 접사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고무줄이 꼬이다.'의 접사 '-이-'는 동사 어간 '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고 있으므로 ㉑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딸랑이'는 부사 '딸랑'에 접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명사이므로 ㉑의 예로 추가할 수 없다. '딸랑'은 '작은 방울이나 매달린 물체 따위가 한 번 흔들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의성·의태어에 해당하므로, '딸랑이'의 '-이'는 '-이<sup>27</sup>㉑'에 해당한다. ③ '떡이다'의 '-이-'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이<sup>29</sup>㉒'에 해당한다. ④ '집집이'는 1음절 명사 '집'의 반복 구성인 '집집'에 접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이므로 ㉒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㉑와 ㉒에서 모두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③ ㉑는 체언 '뽕'과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며, ㉒는 용언의 어간 '빨-'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이다. ㉑와 ㉒에서 모두 이어적기가 나타나고 있다. ⑤ ㉑에는 어두 자음군 'ㄴ'이, ㉒에는 어두 자음군 'ㄴ'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40 ~ 42] 매체 1

4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각 매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는 종이 신문이, (나)에는 블로그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매체를 적절히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블로그는 '댓글 쓰기'라는 특정 기능을 통해 정보 제공자(블로그 글의 작성자)와 정보 수용자(블로그 글의 독자) 간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달리 (가)의 종이 신문은 소통 양상이 직접적이거나 즉각적이지 못하다.

[오답풀이] ① 검색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종이 신문인 (가)에만 해당한다. ② 정보 제공자가 신문 기자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특정 직업군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매체는 (가)이다. (나)의 매체를 통해서는 누구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정보 제공자가 정보 수용자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것은 인터넷 매체인 (나)이다. ⑤ 관련 서버 장치나 네트워크상의 문제로 정보가 소실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인터넷 매체인 (나)이다.

41.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에 따른 정보 구성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와 같은 인터넷 매체는 (가)와 같은 인쇄매체와 다르게 정보 생산자의 범위가 개방적이다. 즉,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의 생산자가 불분명해지며 누구나 정보를 복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라돈 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인터넷상의 여러 자료들(㉑)을 종합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③ 인쇄 매체(가)의 특성상 동영상(㉑)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⑤ 라돈 가스의 유해성이나 환기의 효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독자는 라돈 가스가 얼마나 유해한

지가 담겨 있는 동영상(㉑)을 참고하거나, 환기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담고 있는 기사의 링크(㉒)를 클릭하지 않을 것이다.

42. [출제의도] 특정 매체에 드러난 언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㉑에 사용된 연결 어미 '-면'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앞 절이 뒤 절의 목적에 해당함을 기사에서 나타내었다.'라고 표현한 ㉑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43 ~ 45] 매체 2

43. [출제의도]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매체의 활용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동훈'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 목록에 대해 묻는 '민정'의 질문에 하이퍼링크를 이용해 목록이 나와 있는 누리집을 알려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휴대 전화 메신저의 대화 참여자들이 정보의 발신자이자 수신자이다. 따라서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는 쌍방향적이다. ② 자료를 공유하는 데 편하다는 휴대 전화 메신저의 장점을 언급한 사람은 '재현'이다. ④ '재현'이 공유한 문서는 특정 연구소의 보고서이다. '재현'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 ⑤ '재현'은 '^' 기호를 사용하여 감정을 드러냈지만, '동훈'이 한글이 아닌 문자 기호로 감정을 드러낸 부분은 없다.

44. [출제의도] 초안에 반영된 매체 자료 제작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㉑에서 언급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과 성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은 다섯 번째 카드와 여섯 번째 카드에 나눠 제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㉑에서 언급된 연재물 제목인 '청소년 기초 상식'이 첫 번째 카드 상단에 배치되어 있다. ② 다섯 번째 카드 좌측에는 ㉑에서 언급된 표준근로계약서가 이미지로 제시되었고, 우측에는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문자 언어로 설명되고 있다. ③ 세 번째 카드에서는 15와 18이 원 안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각각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여부에 관해 기준이 되는 나이이다. ④ 네 번째 카드에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자세한 목록을 찾아볼 수 있는 누리집 주소를 제시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댓글을 바탕으로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마지막 카드에서 제목과 마무리 인사말은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하지만 ㉑에서 제목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게 수정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부당한 일'을 사례로 제시하자는 의견이 ㉑에 반영되었다. ③ 마지막 카드의 가운데 부분에서 두 번째 카드와 이어지는 대화 형식으로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㉑에 반영되었다. ④ 두 통계 자료 중 노동 기본권 침해 경험 비율만 원그래프로 제시하자는 의견이 ㉑에 반영되었다. 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전화번호와 누리집 주소를 안내하자는 의견이 ㉑에 반영되었다.